

정책분석과 동향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김세진·이선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Changes in Social Relations and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Korea

김세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존 가족 및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인(친구, 이웃, 친인척)과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각화되었다. 사회참여활동은 경제활동과 친목단체 참여율에 집중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는 현재의 사회참여활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 노인 단독 가구의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욕구 수준을 반영한 여가 경력 확보, 비대면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제언하였으며, 개인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촉구를 강조하였다.

1. 들어가며¹⁾

노인은 은퇴, 자녀의 분가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사

회적 자본의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와 조직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이신숙, 2016),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 사회적 참여(김진현, 2015; 이신

1) 이 글은 김세진 외.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의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장과 제6장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이다.

숙, 2016; Heish, 2008) 수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수준을 파악한다.

노년기는 생애단계 진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시기로,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및 사회적 관계 단절, 사회적 지지 체계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서(윤현숙, 이미진, 2006), 오히려 사회적 자본 보유 수준이 감소하는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정민호, 김진현, 2012; 김진현, 2015; 이신숙, 2016; Forsman, Nyqvist, Schierenbeck, Gustafson & Wahlbeck, 2012; Nyqvist, Forsman, Giuntoli & Cattani, 2013) 노인 집단의 사회적 자원 보유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를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회참여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그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시계열 변화를 파악해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관계에서는 일차적 비공식 관계망인 가족 내 자원과 이차적 비공식 관계망인 지역사회(박경숙, 2000)²⁾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가치관 측면에 대해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계열 변화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비공식 관계망과의 네트워크 수준 변화를 보기 위해 2011년과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각각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형화하고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활동 자체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였으며,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과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 등을 포함(김세진, 2019)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종교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현재 참여 중인 사회적 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사회적 활동을 유형화하여 사회적 자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6.9%이며, 경제활동 참여자 중 33.4%가 자영업자, 7.4%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공식적 관계망에 포함되는 대상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 이 글에서는 비공식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³⁾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히 누구와 함께 사는가의 의미를 넘어 노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노인과 타자 간의 상호 역동 속에 위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의 차원에서 그 변화를 조망할 것이다.

첫째,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관계망의 구조적·기능적 차원에 주목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유형의 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2008년 이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구조적·기능적 차원과 그 기반이 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는 단독 가구 증가가 고착화되어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구조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관계망 규모와도 직결되며, 자녀 수는 2008년 4.0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줄었다. 반면 동년배 형제자매 또는 친구 및 이웃의 경우 등락은 있으나, 2020년 기준 약 3.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측면에서 접촉 실태의 경우, 접촉 방법 및 접촉 빈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접촉 방법에

서는 관계망 유형과 관계없이 왕래보다는 연락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2020년) 들어 접촉 빈도는 점차 감소하였다. 연락 수단의 다양화 및 보편화, 그리고 신규 노인 집단(195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의 진입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단, 최근의 급격한 교류 형태 변화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능적 차원의 또 다른 측면으로 가족 내 지원 교환의 경우, 관계망 유형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다. 배우자와는 상호 호혜적인 지원 양상이 유지되나, 가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구적 지원은 여전히 여성의 일방적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와의 교환 양상에서는 노인과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순으로 지원 교환율이 높게 나타나며, 제공하는 자원의 내용에 따라 그 방향성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수발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외의 항목은 비교적 상호 호혜적인 양상이 유지되었다.

한편 가치관 측면에서 가구 형성의 이유는 노인·자녀 간 역동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자립성 강화에 따라 단독 가구를 형성한다는 응답이 최근(2020년) 들어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노인의 특성 변화가 가치관의

3) 이 글에서의 실증분석은 2008~2020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대리 응답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가치관 및 관계망의 질적 차원에 대한 분석에 한해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샘플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1.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시계열적 변화의 주요 특성

구분	시계열적 변화 주요 특성
구조적 측면	(가족 구조) 노인 단독 가구 증가, 자녀 동거 가구 감소 (관계망 규모) 자녀 수 감소(2008년 4.0명 → 2020년 3.0명)
기능적 측면	(접촉 실태) 연락 중심 교류로 변화, 전반적인 접촉 빈도 감소 (지원 교환) 배우자 - 상호 호혜적 지원 자녀 -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지원 방향성 상이
가치관 측면	(단독 가구)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른 단독 가구 형성 가치관 증가 (자녀 동거 가구) 규범적 요인에 따른 동거 가구 형성 가치관 감소

주: 해당 내용은 김세진 외(2021)의 (표 3-3-①)~(표 3-27)의 분석 내용을 저자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해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140 (표 3-37) 재인용.

변화와 연동됨을 시사한다. 한편 기혼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다. 2008년에 규범적 요인에 의해 기혼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약 2분의 1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리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 변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 변화를 파악하고자 2011년, 2020년 자료원에 대해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와 접촉 빈도를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⁴⁾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규모에는 자녀 수, 형제자매 및 친인척 수, 친구 및 이웃의 수를, 사회적 관계망 접촉(왕래/연락) 빈도에는 비동거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 정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최적 집단의 수는 적합도 지수 및

LM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엔트로피(Entropy) 및 분류된 집단의 소속 비율 등과 같은 일련의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는 다음의 특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두 시점 모두 동년배 교류형이 도출되었다. 주요한 관계망인 배우자의 부재에 따른 상호 보완적 책략으로(이현주, 정은희, 2021), 동년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에는 2011년에 비해 관계망 유형이 더 세분화되어 나타났으며, 관계망의 크기 및 교류 빈도 역시 다각화되었다. 즉, 다각적인 관계망을 보유하였으나 소극적 교류를 이어가거나(소극적 교류형), 협소한 관계망을 보유하였으나 적극적 왕래를 이어 가는 등(다층 왕래형) 개인의 지향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동년배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 가는 유형(친구 교류

4)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및 결과는 김세진 외(2021)의 제3장 제3절 내용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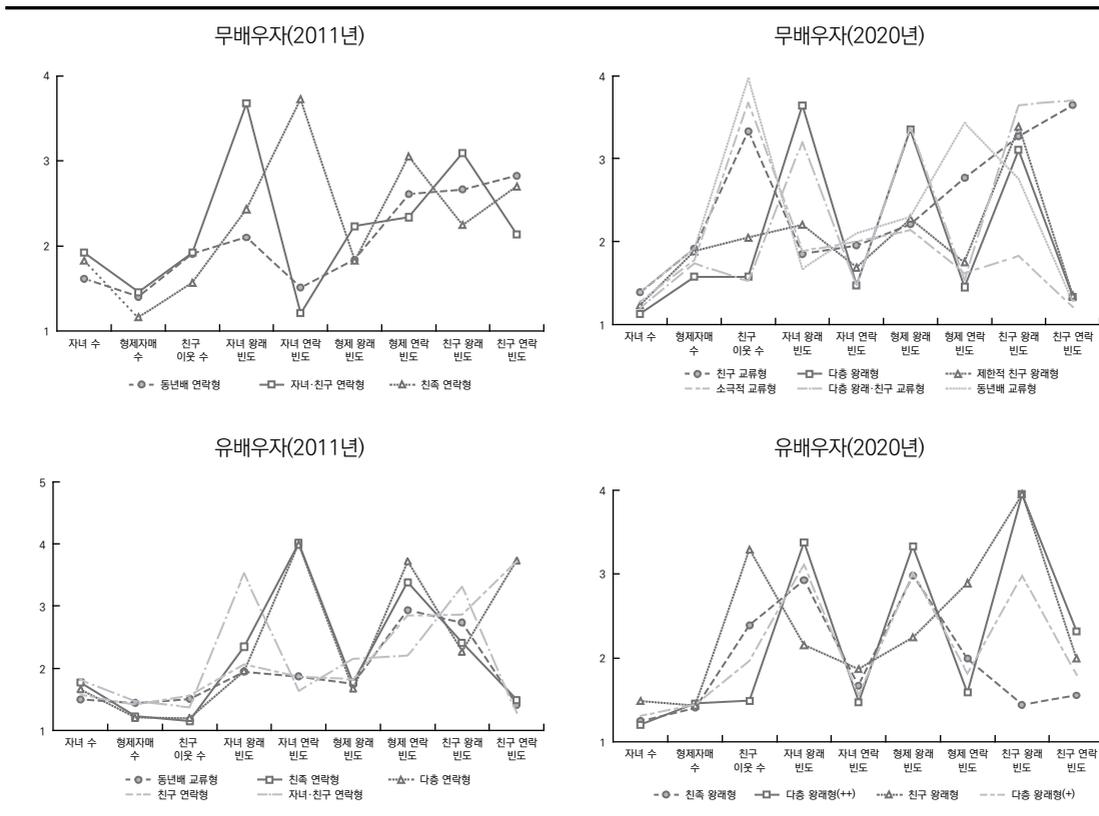
형, 제한적 친구 왕래형, 다층 왕래 + 친구 교류형, 동년배 교류형)이 세밀화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는 다양한 관계망과 교류를 이어 가는 유형(다층 연락/왕래형), 또는 친족 및 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 가는 유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2020년에는 2011년에 비해 관계망 유형이 비교적 단순화되

었고, 더 적극적인 교류 형태(왕래)를 띠는 유형들이 발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시계열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로, 전반적인 왕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노인 본인 또는 관계망과의 역동하에서 대면을 통한 교류가 일정 부분 유지됨을 시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서비스가 비대면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중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다각화된 관계

그림 1.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유형 변화



주: X축 - 사회적 관계망 범인, Y축 - 유형별 범인의 평균값.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p. 119-127 [그림 3-1]-[그림 3-4] 재구성.

표 2.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 특성(종합)

무배우자				유배우자			
연도	유형명	(%)	일반 특성 ¹⁾	연도	유형명	(%)	일반 특성 ¹⁾
'11년	동년배 연락형	41.4	여성, 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11년	동년배 교류형	18.0	전기 노인, 저학력, 고소득
	자녀·친구 왕래형	46.2	여성, 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친족 연락형	8.4	남성,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친족 연락형	12.4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다층 연락형	18.9	남성,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20년	친구 교류형	12.5	여성, 후기 노인, 저학력, 저소득	'20년	친구 연락형	42.3	전기 노인, 저학력, 복합질환
	다층 왕래형	18.6	동부 지역, 고학력, 건강 양호		자녀·친구 왕래형	12.4	남성, 후기 노인, 저학력, 기능제한
	(제한적) 친구 왕래형	19.8	여성, 전기 노인, 고학력, 저소득		친족 왕래형	19.2	동부 지역
	소극적 교류형	11.6	여성, 후기 노인, 저소득		다층 왕래형(++) ²⁾	48.2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다층 왕래 + 친구 교류형	12.8	여성, 전기 노인, 고학력, 건강 양호		친구 왕래형	14.9	후기 노인, 저학력, 기능제한, 저소득
	동년배 교류형	24.8	여성, 초고령 노인, 기능제한, 저소득		다층 왕래형(+) ²⁾	17.7	동부 지역, 전기 노인, 건강 양호

주: 1) 일반 특성 중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함.

2) 다층 왕래형(+)와 다층 왕래형(++) 모두 다양한 관계망에서 왕래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특성을 보이나, 적극성의 상대적 크기(+, ++)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140 (표 3-38) 재구성.

망을 보유한다거나 친구 및 이웃 중심의 관계망이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지지된 것으로(박경란, 2012;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2013; 강은나, 김혜진, 정병오, 2015), 특히 최근 들어 이 같은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도출된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일반적 특성 간 관계를 보면,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전기 노인은 동년배(2011년) 또는 다양한 관계 자원(2020년)과 교류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반면 후기 노인은 자녀 또는 친구와 같이 특정한 관계망과 제한적 또는 소극적 교류를 이어 간다. 연령 증가에 따라 관계

망 축소를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유태균, 반정호, 2012; 김미령, 2006)와 유사한 경향이다. 따라서 장기화된 관계망 축소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뜻한다.

3.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⁵⁾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개수와 사회참여 종류별 참여율 및 향후 희망률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5) 이 글에서의 실증분석은 2008~2020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분석은 원자료의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2011~2020년 원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연도별 65세 이상 본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참여활동은 개인별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시점의 사회참여활동 형태를 현재의 사회참여활동 형태와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 형태로 유형화하여 사회참여활동 형태의 유형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활동률 및 향후 희망률 변화

2011년 이후 한국의 노인은 평균 1.5~1.6개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활동률 및 향후 희망률

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이후 등락을 보이거나 2014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활동 희망률은 2017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감소하였다. 종교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동호회활동의 현재 참여율은 일부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여가 중심 사회참여활동의 참여 희망률은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2020년에 급증하여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베이비

표 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평균 참여 개수 변화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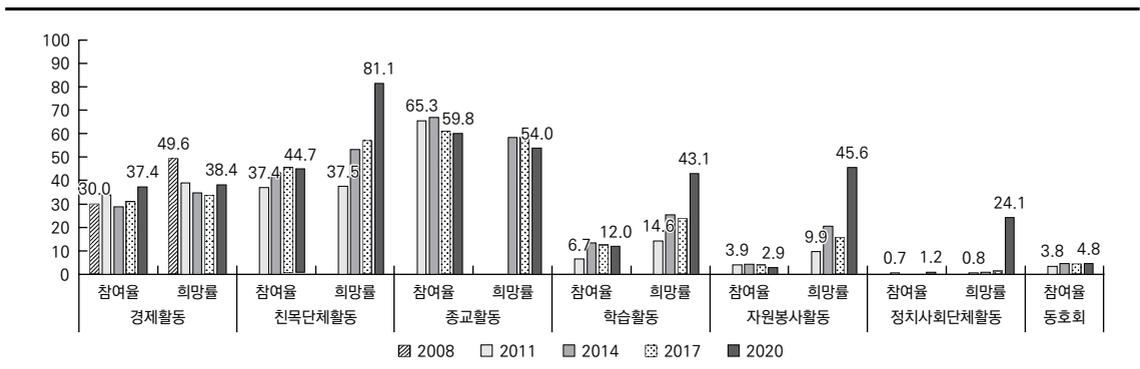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사회참여활동 개수	1.52	1.63	1.59	1.63

주: 샘플 가중치 적용. 본인 응답자 기준 값임.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290 (표 6-23).

그림 2.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율 및 향후 희망률 시계열 변화

(단위: %)



주: 샘플 가중치 적용. 본인 응답자 기준 값임.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323 [그림 6-3].

봄 세대인 신규 노인층 진입에 의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욕구가 분출하여 나타난 결과로 인한 것인지는 향후 진행될 2023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노인은 평균 1.5개 내외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주로 경제활동, 친목단체활동, 종교활동과 같은 소득·친목 중심의 사회참여 등 비교적 소극적인 수준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이러한 추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활동 및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 시계열 변화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활동 및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2011~2020년 자료원에 대해 잠재집단분석⁶⁾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회참여활동에는 친목단체활동, 종교활동, 경제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에는 친목단체활동, 종교활동, 경제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변수를 포함하였다. 잠재집단분석에 따른 최적 집단의 수는 적합도 지수와 LMRT, 엔트로피 및 분류된 집단의 소속 비율 등과 같은 일련의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

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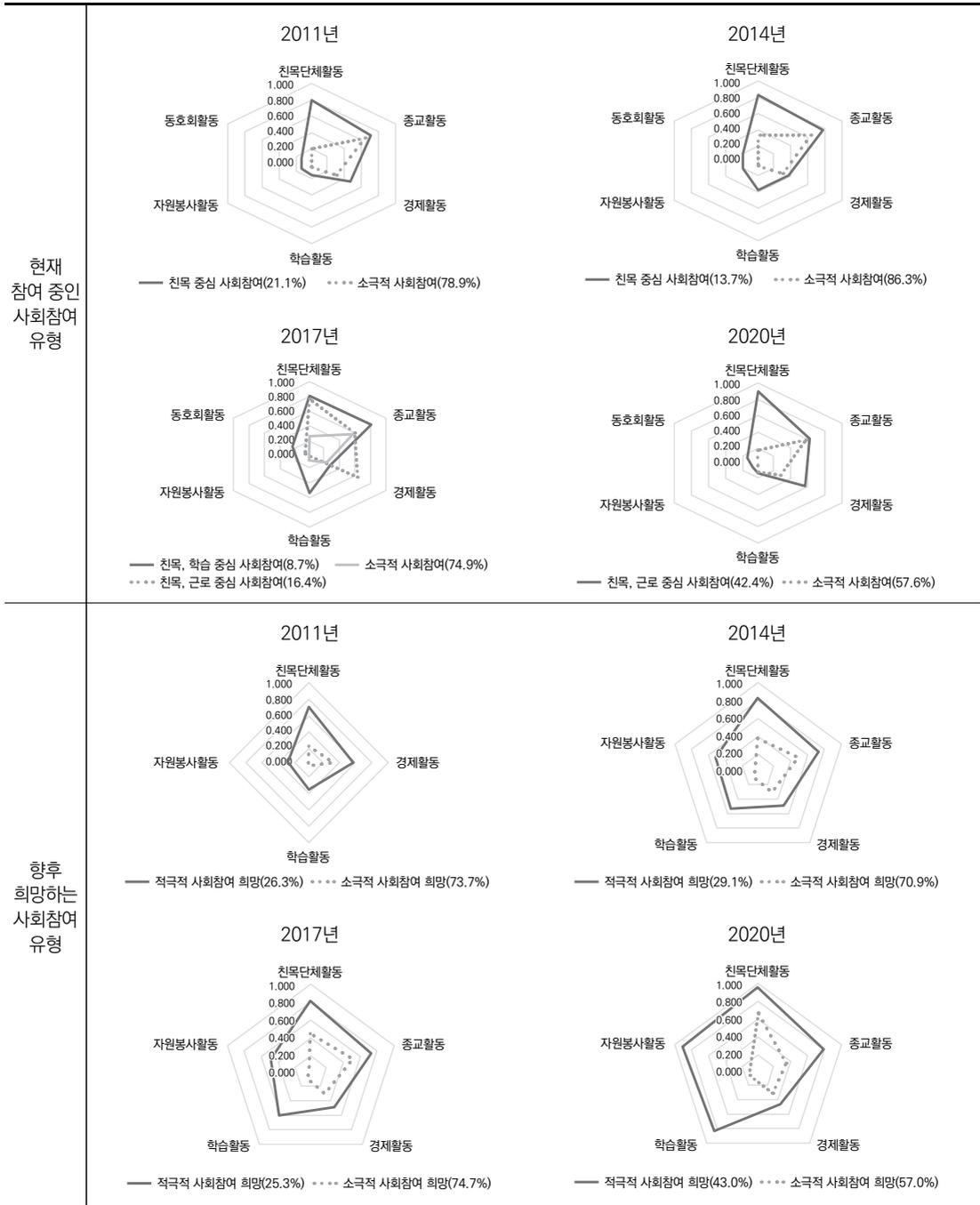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 유형과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을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2~3개의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모든 연도에서 친목활동 또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모든 활동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집단이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2014년 이후 소극적 사회참여형의 비율은 감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형태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과 2020년은 친목단체활동과 종교활동 외에 학습, 근로활동이 주요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과 2020년에 경제활동이 주요 분류 변인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에서 경제활동이 갖는 의미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최근까지도 노인의 삶에서 경제적 목적의 사회참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완전은퇴(full-retirement)⁷⁾ 이후에 맞이하는 노후생활에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예견하는 결과이다.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 희망형의 비율은 2011~2017년에 답보 상태였으나, 2020년에는 급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특성 변화인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에 따른 욕구의 분출 결과인지는 향후 추가적 조사 결과

6) 잠재집단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및 결과는 김세진 외(2021)의 제6장 제3절의 내용을 참조하라.

7) 은퇴 유형은 '완전은퇴(full-retirement)'와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로 구분되며, 완전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를 의미한다. 부분은퇴는 연결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전 직업에서 노동력 혹은 임금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는 것 등 생애직업에서 전이된 일의 형태를 의미한다(차경옥, 김연주, 2009).

그림 3. 노인의 현재 참여 중인 사회참여 유형 잠재집단 모형의 사후확률 도식화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p. 294~298 [그림 6-1]~[그림 6-2] 재구성.

표 4.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 및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 시계열 변화

(단위: %)

현재 참여 형태 잠재집단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친목 중심 사회참여	소극적 사회참여	친목 중심 사회참여	소극적 사회참여	친목·학습 중심 사회참여	친목·근로 중심 사회참여	소극적 사회참여	친목·근로 중심 사회참여	소극적 사회참여
비율	21.1	78.9	13.7	86.3	8.7	16.4	74.9	42.4	57.6
향후 참여 희망 형태 잠재집단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비율	26.3	73.7	29.1	70.9	25.3	74.7	43.0	57.0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324 (표 6-37).

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형들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해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는 두 가지 형태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 소극적 사회참여형이고 향후에도 소극적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1년 71.1%에서 2020년 37.4%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재 적극적 사회참여형이고 향후에도 적극적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1년 18.4%에서 2020년 22.8%로 증가하였다.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은 감소하고,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이 증가하는 경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노년기 사회참여활동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노년기 진입 전부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참여 가능한 경로를 개척해 나가야 이 같은 변화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형태와 향후 희망하는 형태가 상이한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는 적극

적 사회참여형이지만 향후 소극적인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1년 2.7%에서 2020년 19.6%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현재는 소극적 사회참여형이지만 향후에는 적극적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1년 7.8%에서 2020년 20.2%로 증가하였다. 현재 소극적 사회참여형이지만 향후 적극적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회참여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경우도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7년과 2020년의 적극적 사회참여형 상당수는 친목·근로 중심 사회참여형으로, 경제활동이 사회참여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2017년과 2020년에 현재 적극적 사회참여형에 속하지만 향후 소극적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퇴 후 노후생활에서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한 것인지 혹은 참여하는 사회활동과

표 5. 노인의 현재 사회참여 및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유형 간 관계 변화

(단위: %)

현재	구분 ¹⁾		2011	2014	2017	2020
	→	향후				
적극적 사회참여 ¹⁾	→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18.4	11.0	12.7	22.8
적극적 사회참여 ¹⁾	→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2.7	2.7	12.4	19.6
소극적 사회참여	→	적극적 사회참여 희망	7.8	18.1	12.6	20.2
소극적 사회참여	→	소극적 사회참여 희망	71.1	68.2	62.2	37.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현재의 사회참여 유형은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경향성 분석을 위해 어떤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인 2011년과 2014년의 친목 중심 사회참여형과 2017년의 친목·학습 중심 사회참여형, 친목·근로 중심 사회참여형, 2020년의 친목·근로 중심 사회참여형을 '적극적 사회참여형'으로 통합하여 변화를 분석함.
 자료: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해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p. 326 (표 6-38).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인지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은퇴한 이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참여 변화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이 글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진단하고 시계열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신뢰할 수 있는 동년배와의 관계망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변화는 기능적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두드러졌다. 즉,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년배가 관

계망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들어 가시화되었다. 축소된 가족 구조가 하나의 보편화된 경향으로 자리 잡고 향후에도 이 같은 경향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지인 및 이웃을 중심으로 한 동년배와의 관계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 측면과 관련한 가족 내 지원 교환에서는 노인 본인과의 연결끈(tie)에 따른 호혜적 관계가 배우자, 동거 자녀, 비동거 자녀 순으로 유지되었으며, 물리적 공간 향유 및 노인 본인·배우자(또는 자녀)와의 역동을 바탕으로 지원 교환의 적시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노인의 독립성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2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이 역시도 소득활동 또는 친목활동에 국한된 양상이다. 나아가 현재의 사회참여 및 향후 희

망 활동 간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극적 활동을 향후에도 지속한다거나 현재는 소극적이지만 향후 적극적 활동을 희망한다는 등의 결과가 2020년 43.0%로 이전 시점 대비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이와 반대의 결과 - 즉, 소극적 경향 유지 또는 소극적 경향으로 전환 -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친구 및 이웃, 지인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다각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지원, 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단독 가구의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원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개인(또는 부부)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정보를 구득하고 참여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퇴 이전부터 여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욕구 수준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욕구 수준의 불일치가 소극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제공

방식의 다양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신규 노인층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대면 사회참여활동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다수 사회참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교육 제공을 비롯하여 공공 와이파이 확대, 참가비 지원 등의 여건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제한된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소극적 수준의 외부 활동을 유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인적 자본이 취약할수록 사회적 자본 역시 취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이 장기적인 생애과정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변화가 한시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생애경로로 자리 잡는 데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적 개입을 통한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과의 적극적 협업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진, 정병오.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 김미령. (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pp. 197-222.
- 김세진. (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세진, 이선희, 남궁은하, 이윤경, 백혜연, 신혜리, 이상우.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현. (2015). 노년기 사회자본의 차이가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3), pp. 181-201.
- 박경란. (2012). 단독가구 노인의 구조적 사회관계망 유형과 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pp. 929-945.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pp. 621-647.
- 유태균, 반정호. (2012).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pp.349-372.
- 윤현숙, 이미진. (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pp. 197-217.
- 이신숙. (2016).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pp. 555-572.
- 이영수. (2022). 사회자본의 개념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306호, pp. 6-20.
- 이현주, 정은희. (2021). 노년기 가구형태와 우울 변화 - 대처자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1), pp. 169-196.
-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pp. 281-308.
- 정민호, 김진현. (2022). 사회자본이 농촌 거주 노인의 우울 상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한 단면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2), pp. 144-156.
- 차경옥, 김연주. (2009).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가계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pp. 95-114.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pp. 241-258). edited by Richardson, J. G., NY: Greenwood.
- Forsman, A. K., Nyqvist, F., Schierenbeck, I., Gustafson, Y., & Wahlbeck, K. (2012). Structur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two Nordic regions. *Aging & Mental Health*, 16(6), 771-779.
- Heish, C. H. (2008). A concept analysis of social capital within a health

context. *Nursing Forum*, 43(3),
151-159.

Nyqvist, F., Forsman, A. K., Giuntoli, G., &
Cattan, M. (2013). Social capital as a
resource for mental well-being in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Aging & Mental Health, 17(4),
394-410.

Changes in Social Relations and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Korea

Kim, Se-jin

Lee, Sun-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Based on data from the 2008–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activitie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The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diversified as a network of friends, neighbors, and relatives, has expanded away from the existing family- and child-centered relationship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ended to concentrate on economic and social group participation. The proportion of those wishing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that are more active than the ones in which they currently participate has increased over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seeking ways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of the elderly alone, securing leisure experiences reflecting the level of desire, seeking policy measures due to increased non-face-to-face social participation, and emphasizing individual and society's continuous efforts and attention.